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2학기 첫 강의 스타강사 서강대 최진석 교수



최진석 서강대 교수가 지난 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 호텔에서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2학기 첫 강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남의 철학만 따라하다간 선진국 문턱 넘을 수 없죠

인문학적 사고 뒤흔친 현실 꼬집어...“생각하는 힘·선도력 길러야”

“우리 모두는 인문학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에 질문을 하는 독립적 주체가 돼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너는 너냐?’, ‘나는 나냐?’라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려는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1일 오후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특강에 인문학 스타강사인 서강대학교 철학과 최진석(56)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최 교수는 영화 ‘인터스텔라’에 대한 이야기로 운을 뗐다. “영화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마음 한 켠엔 지구 상에서 이런 수준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남이 잘한 일에 박수만 치고, 또 분석만 하며 세월을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생자의 깊이와 폭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만든 철학과 지식을 따라하거나 습

득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종진국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독립과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단계까지 순조롭게 달려왔으나 선진국 단계로 넘어가는데 투명한 벽에 갇히는 바람에 역사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나 기술 발전 수준으로 선진국을 가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있는 나라 그리고 남을 선도하는 생각인 선도력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는 인문학적으로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문화·예술·철학 등 관련 행사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을 받기가 쉬운 반면, 한국에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에서는 문화와 철학, 예술을 ‘살이 충족된 뒤 누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다. 이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선진국을 운영해본 기억이 없다는 증거이자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게 최 교수의 진단이다.

“중국은 역사 속에서 ‘제국’이라는 선진국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

는 중국이 문화·예술·철학·역사가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닌, 한 덩어리로 작동한다는 현실적 가치를 깨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우리가 인문학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는 세계를 관념으로 포착하는 능력이 ‘장르’를 만들 수 있고, 장르가 곧 선진국에 오를 수 있는 선도력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철학적 고민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한 단계 뛰어 넘어서기 위한 시도를 할 때 비로소 발전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이념과 지식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현실 그 자체에서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 교수는 “변화의 흐름을 포착하는 능력이 인간의 탁월함을 결정하는 요소”라며 “이제 한국은 정신적 풍요와 삶의 가치 추구를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포함한 생존을 위해 인문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뭇로 만들었는지 알면 기겁할 걸요

‘아트광주15’ 구더기로 만든 19억원짜리 작품

박태부 작가 ‘반고신화’ 마오쩌둥 얼굴 형상화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관에서 열린 ‘아트광주15’에는 구더기로 만든 19억여원의 작품이 출품돼 눈길을 끌었다.

이 아트페어에 참여한 ‘갤러리 미셀’이 선보인 조각품인 박태부 작가의 ‘반고신화’(盤古神話·사진)는 스티로폼으로 된 사람 머리 모양 위에 구더기를 붙여 만든 작품이며, 마오쩌둥 중국 초대 주석의 얼굴을 형상화했다.

작가는 ‘알 속에서 무려 1만8000년을 살던 반고는 전지를 창조하고 죽을 때 그의 몸에서 생겨난 구더기가 바람을 만나 인간이 되었다’라는 중국의 반고 신화를 토대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

현재 이 작품은 프랑스 에마누엘 페로탱에 1점, 중국에 1점, 한국 갤러리 미셀에 1

점이 소장돼 있고, 이 중 한 1점은 중국의 컬렉터에게 19억여원이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아트페어에 출품된 작품은 판매는 하지 않고, 관람객들에게 전시만 할 계획이다. 이 작품은 스티로폼으로 두상의 본을 뜬 뒤 물에 담갔던 화장지를 하나하나 실처럼 찢어 그 위에 붙여 얼굴 모양을 만들었다. 말리고 다시 붙이고, 또 말리고, 그런 다음 마루리로 감정 수성페인트를 칠하기까지 2개월이 걸렸다.

한편 부산 출신인 박 작가는 홍익대 서양화과에 입학해 3년을 다니다 광고미술 전공으로 전과했다. 졸업 후 TV CM 감독으로 일하기도 했다.

/김용희 kimyh@kwangju.co.kr



광주·전남 4대호 저수율 톱...내년 영농 비상

광주와 전남 중부권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4대호(나주·장성·담양·광주)의 평균 저수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영농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낮은 저수율이 계속되면 내년 봄 영농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이 지역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4대호 평균 저수율은 35%로 지난해 55%보다 20%포인트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수확기 이전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면 저수율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농어촌공사는 내다봤다. 4대호는 광주시와 나주시, 전남 장성·담양·함평·영암군 일대 2만9593ha에 이르는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저수량 부족이 이어지면 농업용수 공급도 차질이 뻔하다.

낮은 저수율의 원인은 강수량이다. 광

주 측후소 기준 올해 광주·전남지역 강수량은 762mm로 평년보다 357mm나 적게 내리면서 평년대비 68% 수준에 그쳤다. 이달 예상 강우량도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예보돼 내년 용수공급 차질 등 가뭄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따라 긴급 광역물관리협의회를 열고 농업용수 절약과 농업용수 확보 방안 등 대책을 협의했다. 협의회는 4대호에서 공급하는 농업용수를 5일 급수·5일 단수하는 간단급수를 실시하고, 용수공급을 예년보다 다소 이른 이번 달 15일까지만 하기로 했다. 조정광 본부장은 “아직 영농에 지장은 없었지만 저수량 부족이 계속되면 내년 봄 영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농업용수 절약에 농업인들의 동참을 바라며 영농에 필요한 용수확보와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정부 “공동보도문에 지뢰도발

유감표명 문항 들어간 게 정답”

정부는 2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언급을 잇달아 내놓는 것에 대해 “이번 공동보도문에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표명과 관련된 문항이 들어갔다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정중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지금은 합의문에 대해 일희일비, 월가월부할 상책이 아니고 남북이 함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감 표명”은 사실상 ‘문병을 한 셈’이라고 설명하고 “남조선 당국이 유감이라는 문구를 북조선식 사료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선 글자의 뜻과 단어의 개념 자체도 모르는 무지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30대 그룹 계열사 56%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부, 중기 확산 총력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가 빠르게 확산해 30대 그룹 계열사의 절반 이상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노동청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전국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규모별·업종별 임금

피크제 도입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임금체계 변화 등 노동개혁이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 378곳 중 212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피크제 도입률 56%를 기록했다. 이는 378곳 중 177곳(47%)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6월말에 비해 35곳이 늘어난 것이다. 내년 60세 정년 연장을 앞두

고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데다,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 등을 발표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두산그룹은 두산DST, 두산퓨얼셀BG, 두산엔진, 두산산자BG 등 4개 계열사가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했다. 두산그룹은 내년부터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한편 고용부는 임금피크제가 중견·중소 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 재정·세제 지원 ▲ 우수사례 발굴·공유 ▲ 현장밀착 지도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9
	국제한국어교원학과	5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7	3
사범	유아교육과	17	3
예능	음 악 학 과	10	5
	실용음악학과	15	5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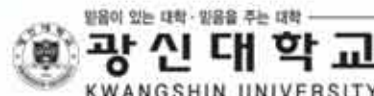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5. 9. 9(수) ~ 15(화) • 전형일 : 2015. 10. 2(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5. 12. 24(목) ~ 30(수) • 전형일 : 2016. 1. 5(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탄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2015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17기)	광주교육대학교(12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5. 9. 4(금) 09: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5. 9. 4(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5. 9. 5(토) 09:10 (초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5. 9. 7(월) 14:10 (중급반) ·월. 목. 09:20반 '2015. 9. 7(월) 19:00 (특급반) ·목요일 오후반 '2015. 9. 10(목) 14: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5. 9. 12(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5. 8. 3.(월)~9. 5.(토)	2015. 8. 3.(월)~9. 12.(토)
수업기간	2015. 9. 4.(금)~2016. 2.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5. 9. 7.(월)~2016. 2.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09:20반 18: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원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원문책임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장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대학기회 부여)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원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원문책임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장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대학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6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